

(부문운동 설명 및 여성운동의 지형설명)

(부문운동에 대한 설명) 부문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먼저 있고 주변의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그 자잘한 문제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부문운동입니다. 부문운동은 중심운동이 제대로 풀리지 못할 때는 늘상 지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운동은 그렇게 지연되어 오기만 했었습니다.

(성정치 문화제와 여성운동의 바뀐 지형-독자적 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 95년 가을, 연세대학교 안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을 여는 성정치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운동이 중심운동에 대한 부채감 없이 독자적인 운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문제를 전적으로 고민하는 자치단체들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침묵만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조금씩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일정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준비 및 인사) 2
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시선, 열린 질서를 향한 여/성/행/동. 제 11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 법학과 3학년 장임 다혜입니다.

(여성창조와의 차이점에 대한 강조)

(시간을 둔다)

(선거의 모습 비판)

(선거에 대한 비판) 선거를 할 때마다 (좀 낮설고 미심쩍게 생각되는) 행동들과 구호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선거의 모습1-일반적) 빛을 내서라도 몇백만원씩 돈을 모아야 하고, 생전 안 입던 **정장을** 사입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사진**을 찍고,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비추고 다닙니다.

(선거의 모습2-공약납발)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만 연세의 이름으로 무엇무엇을 주장
합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는 그런 단언적인 말 속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정치적 파급력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라는 말이 있죠. ~~많은~~ 학내에 많은 사람들이 자치에 대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 비판)

(학생회 비판) 그렇게 선거를 통해 표를 얻은 학생회가 이번에는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은 대표기구라고 자임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신의 운동성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거나 자신이 대표로서의 상위권위와 권력을 가진다는 식의 사고는, 결코 자치를 남발하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들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거를 통해 1년 동안 기구로 고정되어버리는 학생회, 극소수의 학생회 임원들만이 구성하는 학생회, 원칙적으로 무조건 학생회의 일원이 되지만 실제로는 학생회 집행부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학생회, 우리는 이것을 기구로서의 학생회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총여학생회는 "기구"가 아니라 "질서"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치란 결코 단일할 수 없으며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월한 것이거나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크게) 우리는 감히 말합니다, 아무도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식이란 그 누군가가 아래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건대, 어느 누구도 나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총여학생회는 5천 여학우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후보단의 이미지와 말발이 아니라, 선본의 정책과 공약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 선거, 다양한 비판과 발언이 나오고 그렇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나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문제 - 자치질서)

(여성문제는) 여성문제는 그것이 설득되고 확장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표되거나 대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5천 여학우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흐름들이 연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대와 문대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치입니다) (강조하며) 그것은 자치입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자치입니다. 여성주의적 자치는 나의 다름을 발현하고,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질서를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복수와 주체를 속 관계망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구가 아닌 질서) 하지만 여성들을 가로지르는 조건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 소통과 연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입니다. (한번 더 크게) 총여학생회는 서로 다른 차이들을 인정해

220 그 기반 하에 각각의 조건아래서 일상을 정치화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치 질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여학생회에 대한 상상)

(총여학생회에 대한 상상)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총여학생회를 상상합니다.

각각의 자치 흐름들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table을 제안합니다. (누가) 여성으로서 발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한시적 모임, 자치단체 모두가 이 table에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문제의식을 풀어내면서 함께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격) 이 모임에서는 여성운동에 관한 견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활동들이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제일원칙으로 합니다. 오히려 그 차이들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고 논의 후, 동의 혹은 반대의 운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able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소통/활동을 제안/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공간문제를 조율하는 장이기도 하다. (예산) 기존에는 예산이 학생회 집행부에 의해 결정되고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table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서로의 상황에 따라 조율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공간) 공간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총여학생회실은 총여학생회 기구만의 공간이 아닌 여성운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치공간으로 개방하여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소식지) 또한 이러한 table을 통해 논의된 모든 내용을 공개화하고 또다른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힐 수 있게 할 것이며, 통신공간이나 의견함/백지자보로 자신의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원할한 의사소통기제로 만들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찍으려는 그 표는 당신의 대표자를 뽑는 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동의하는 정치에 대해 동의와 지지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표가 유권자의 권리찾기를 우리에게 위임한 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의무를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반에 대한 일상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지반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성주의적 자치질서'의 존재조건이자 바로 '여성행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현됩니다.)

(끝에 뭐라 말해야 하지?)

(생각해보니까, 간략하게 원고를 적어서 보면서 유세하는 걸 본 것 같다.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는데, 연습할 때부터 살짝살짝 보는 연습하면 되지 뭐!)

우리 함께, 우리가 서있는 현실에서, 다르게 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지주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